

# 전북형 늘봄학교 1학기 75곳서 운영

### 전북자치도교육청, 3월부터... 기존 방과후학교·초등돌봄교실 하나로 통합 희망하는 초등 1학년생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매일 2시간 이내 무료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서거석 교육감)은 학생 성장·발달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및 돌봄대기 제로화 실현을 위해 오는 3월부터 '전북형 늘봄학교'를 운영하기로 했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 성장·발달을 도모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이다. 늘봄학교가 도입되면 기존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이 하나의 체제로 통합된다.

민원성 미래교육과장은 13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 겪고 있는 돌봄의 어려움과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1학기 75개교를 시

작으로 2학기에는 도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전북형 늘봄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민원성 과장이 설명한 2024년 '전북형 늘봄학교' 추진방안으로는 1학기에 75개교,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희망하는 1학년 학생이라면 누구나 늘봄학교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

이에 따르면 1학기에는 학교 규모나 인력 배치 현황 등을 고려해 유형별 지원체계를 구축, 2학기 전체 초등학교로의 확산을 위한 모델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 성장·발달 단계와 학부모 수요 등을 고려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중 매일 2시간 이내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빨리 적응하고, 놀이 중심의 예·체능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사의 늘봄학교 행정업무 부담 해소를 위해 교육지원청 늘봄지원센터 지원 역할을 강화한다.

1학기에는 과도기적으로 기간제교원, 자원봉사자 등을 배치해 늘봄학교 신규 업무가 기존 교사 업무에 더해지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이어 2학기에는 늘봄실무지원이 학교에 배치돼 기존에 교사가 맡았던 방과후업무를 포함한 늘봄학교 관련 행정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늘봄학교 운영과 관련해 학교안 뿐만 아니라 학교밖 기관으로까지 확대된다. 학교안에서는 최대 오후 6시까지, 이후 발생하는 수요는 최대 오후 8시까지 학교밖에서 운영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지역사회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학교밖 늘봄기관(211개 기관 예정) 및 거점돌봄센터(전주, 군산, 고창)를 운영, 학교안 돌봄 수요를 학교밖에서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 및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해 학교안팎에서 다양한 늘봄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면서 "지자체는 물론 지역별 돌봄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고, 학교의 부담은 최소화하는 '전북형 늘봄학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학교 전주캠퍼스 전경

## '교육국제화 역량' 2년 연속 인증받아

### 우석대, 2026년 2월까지 학위과정·어학연수과정 인증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는 2년 연속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에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와 법무부가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체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IEQAS) 평가와 유학생 유치·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인증대학을 선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우석대는 필수지표인 외국인 유학생 불법 체류율과 핵심지표인 △국제화 사업계획·인프라 △학생선발 및 입학 적절성 △유학생지원 △유학생 관리 등을 충족, 오는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2년간 학위과정(학사·석사·박사) 및 어학연수과정에 대한 인증을 받게 됐다.

특히 인증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정부 초청 장학생 수학 대학 선정 시 가점 부여 △해외의 한국 유학박람회

회 개최 시 참여 우대 △외국인 유학생 선발 자율화 등의 혜택을 받는다.

남천현 총장은 "2년 연속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으로 선정되면서 우리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교육과 함께 대학의 국제화 역량 전반에 대한 건실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았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대학은 국제교류원을 중심으로 고려인과 국외거주 외국 동포 등 지역 정주형 우수 유학생 유치와 글로벌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걸음을 재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석대학교는 중국 교육부의 중외 합작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해 세계 32개국 256개 대학 및 58개 기관과의 교류 협력 및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을 운영, 현재 1,300여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수학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 원격수업 확대 운영 문제점 해소한다

### 전북대, 원격수업 학습 윤리 가이드 마련 향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에 활용키로

전북대학교가 원격수업 학습 윤리에 관한 가이드를 마련했다.

13일 전북대에 따르면 교육혁신처 주관으로 마련된 이 가이드는 정현철 책임연구자 등의 검토를 통해 교수자와 학습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경험한 원격수업의 문제점과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학습윤리 가이드 및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활용 지침과 학습자·교수자의 원격수업 학습 윤리 가이드 지침에 관한 내

용도 담겼다.

특히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시스템 사용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한 참여와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전북대는 향후 원격수업 학습 윤리 가이드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수강자료 신청 안내 제공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김현경 교육혁신처장은 "앞으로도 원격수업에서의 학습윤리 함양 및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가 원격수업 학습 윤리에 관한 가이드를 마련했다. 사진은 전북대학교 대학본부 전경.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 노동인권교육 강사단 역량 강화

### 전북자치도교육청, 오늘까지 워크숍 운영 2022 개정교육과정 연계 강의 표준안 개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3~14일 이틀간 전주비전대 행복기숙사에서 2024년 노동인권교육 강사단 역량 강화 워크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강사단의 역량 강화를 통해 학교 노동인권교육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워크숍은 학교 노동인권교육 이해를 위한 주제 특강, 강의 표준안 안내 및 강의 지도안 작성, 강사단 운영 협의 등으로 운영된다.

강사로는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권순미 교수와 안성민 팀장이 각각 '2022 개정교육과정 연계 노동인권교육'과 '노동인권교육 감수성을 깨우는 수업

방법'에 대해 강의한다.

또한 13일에는 군산당북초 임두진·허수관 교사가, 14일에는 전주상업정보고 박경훈 수석교사·군산여상 김형배 교사 등 4명의 교사가 개발한 강의 표준안을 수업시연으로 안내하고, 강사단이 직접 강의 지도안을 작성하는 등 실질적인 연수 운영에 초점을 뒀다.

김명철 전북교육인력센터장은 "이번 워크숍을 위해 2022 개정교육과정과 연계한 노동인권교육 강의 표준안을 개발했다"면서 "이를 통해 노동인권교육 강사단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학교 구성원 중심 청렴한 학교문화 조성

### 전북자치도교육청, 올해부터 학교자율형 종합감사 전면 시행... 23일까지 희망 학교 신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올해부터 학교자율형 종합감사를 전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학교자율형 종합감사란 학교 스스로 업무를 개선할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감사계획을 수립, 감사 결과에 대한 처분과 개선 등을 스스로 이행하는 것이다. 적발·처분 위주의 감사가 아닌 지원과 예방 중심의 감사행정으로 지난해 하반기 13개교에서 시범운영을 마쳤다.

이에 따르면 시범운영 학교 대상 만족도 분석 결과 '직무수행 및 자기계발에 도움을 받았다', '담당업무에 대한 이해 및 중요도가 향상되었다' 등의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이에 올해는 종합감사 예정인 공립유·초·중·고 251개교 중 학교장이 교직원 의견수렴을 거쳐 신청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자율형 종합감사를 시행한다.

학교자율형 종합감사를 희망하는 유

치원 및 초·중학교는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도교육청으로 오는 23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된 학교들은 학교별 일정에 따라 1·2단계 내부점검을 거쳐 3단계 교육(지원)청 주관의 점검 및 확인을 진행한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개선 요구사항인 자율점검표 축소 등을 반영해 기존 운영·점검 매뉴얼을 교

직원들이 활용하기 쉽도록 현행화 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홍열 감사관은 "학교자율형 종합감사는 예방 중심의 감사 체계 전환을 통한 학교의 자율성 확대와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도입했다"면서 "시범운영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 등을 개선해 학교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교직원의 업무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지난 2일 초·중·고 시청각실에서 공립 단상위 유치원 및 공립 초·중·고·특수학교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을 대상으로 2024년 학교자율형 종합감사 설명회를 개최했다.

/장은성 기자

#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